

진실 앞에서 낮아져야 하는 이유



글.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

1991년 1월 저는 수습기자였습니다. 선배 기자에게서 지시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원숭이 프로젝트’라고 해야 할까요. 당시 2호선 전철 문래역 옆에는 작은 동물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원숭이들이 추위에 얼어 죽지 않는지 매일 숫자를 체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곱은 손으로 열 마리가 넘는 원숭이들을 세는 건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한 놈이 굴속에 들어가면 비슷한 놈이 튀어나왔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세길 여러 번. 한숨이 나왔습니다. 보름 쯤 됐을까요. 이걸 아니다 싶어 동물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숭이가 얼어 죽습니까?” “원산지가 어디라고 돼 있죠?” “팻말에 북해도라고...” “아, 개들은 추위에 강한데요.” “그, 그렇습니까?”

제 보고를 받은 선배 기자도 “그러냐?”며 멍쩍은 목소리로 지시를 거두어주었습니다. 요즘 새내기 기자들을 보면 그 시절 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저들도 정신없이 거리와 골목을 누비고

다니겠구나 하는 안쓰러움과 함께.

언론사에 입사하면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것을 가리는 훈련을 거치게 됩니다. 기자는 팩트(사실)를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기사든, 칼럼이든 주제가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들어 있는 기본 팩트가 틀리면 모든 게 무너져 내립니다.

문제는 그 팩트라는 것이 단순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문래공원의 원숭이 숫자처럼 딱 정해진 것이라면 원숭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라도 세 보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란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양쪽의 말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하기란 고역에 가깝습니다.

이러테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공무원이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기사화되면서 퇴직을 했습니다. 얼마 후 그가 저를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둘이 만난 자리에서 그가 내민 것

은 한통의 편지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직접 언론사들을 찾아다니겠다고 하셔서...제가 대신 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읽어만 주시면 됩니다.”

예닐곱 페이지에 달하는 아버지의 편지는 아들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문장 하나 하나에 안타까움이 배어 있는 편지를 다 읽은 뒤 그에게 사건에 관해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연일 야근을 했던 때문인지 출근길 지하철에 서서 졸았습니다. 앞에 계신 여자 분이 얼굴을 돌려 쳐다봐서 그제야 몸이 닿은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 물러섰는데...지하철 수사대 형사들이 조사를 해야 하니 내리자고...”

그가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공교롭게도 어느 기자의 귀에 들어갔고 신문에 실리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됐든 몸이 닿은 건 사실이고, 당사자인 여성과 빨리 합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기사가 나온 다음엔 ‘고의는 없었다’고 부인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았고...모든 게 저의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헤어진 뒤 저는 그의 목소리, 그의 표정을 떠올려보았습니다. 그의 말은 사실일까, 거짓일까. 문득 한 판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면 누가 거짓을 말하고, 누가 사실을 말하는지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결국 제한된 증거로 판단내릴 수밖에 없는데...

어쩌면 인간사회에서 이뤄지는 모든 판결은 ‘가처분’인지도 모릅니다. 진짜 판결은 신(神)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재판 절차를 거친 판결도 가처분에 불과하다면 마감에 쫓기며 쓰는 기사는 더욱 완벽한 사실이라고 말하기 힘든 게 아닐까요? 기자 경력 20년을 넘으면서 점점 더 기사 쓰기가 어려워지는 건 내가 아는 사실이 얼마나 확실한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언젠가 한 외교관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신문에 외교 비사(秘史) 시리즈가 실렸는데, 한 등장인물의 증언이 내가 기억하는 사실과 다른 거예요. 그때 그런 느낌이 들더군요. 저 분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입장에 따라 기억도 달라지는구나...”

기억이 양심까지 속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인간의 한계, 뇌의 한계인지 모릅니다.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기자는 최대한 ‘사실에 가까운 사실’을 찾아내 전달해야 합니다.

사실 전달의 의무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건 기사화 과정입니다. 한정된 지면에 한정된 분량으로 실어야 하는 기사는 취사선택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기사의 주제에 맞는 팩트는 살리고, 맞지 않는 팩트는 버려야 합니다. 전문가 멘트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제에 맞는 멘트는 살리고, 맞지 않는 멘트는 죽입니다. 반쪽의 진실을 전달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주제에 맞는 팩트와 멘트를 잘 찾아내는, 빨리 찾아내는 기자를 우린 ‘민완(敏腕)기자’

라고 부릅니다. “특종과 오보는 종이 한 장 차이”라거나 “특종 많은 기자가 오보도 많이 낸다”는 속설도 기사 작성 공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반쪽 진실은 특종도 될 수 있고, 오보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진영논리가 공고해지면서 팩트마저 관점이나 주장에 오염되곤 합니다. 정치적 사건들은 양쪽 측면을 모두 갖기 마련인데 한쪽 측면을 부각시키는 기사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쪽은 ‘특종’이라고 말하고, 반대쪽에선 ‘오보’라고 말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양면의 진실을 모두 담는 저널리즘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저는 ‘롱 저널리즘(long journalism)’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 미국 풀리처상을 수상한 LA타임스의 기사 한편을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장문의 기사는 한 형사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은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사냥을 떠나면서 시작됩니다. 아버지가 사냥을 하러 간 사이 아들이 차에서 내려 실종됩니다. 얼마 후 아들은 차디찬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처벌 여론이 들끓자 검사는 아버지를 기소합니다. 그 자신도 사고로 아들을 잃은 경험이 있는 검사는 아이의 아버지와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유죄협상)을 합니다.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집행유예로 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판사는 플리바게닝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합니다. 법은 집행되어야 한다는 신념 때문입니다. 선고 후

아버지는 아들을 잃었던 곳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기자는 아버지, 검사, 판사의 삶과 생각을 심층 취재해 법의 문제를 파고 들어갑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 진실이 아니라 종합적인 진실을 추구한 것입니다. 반쪽 진실은 현실을 왜곡하지만 양면의 진실은 현실을 깊이 있게 고민하게 만듭니다.

한국 언론계에서도 한쪽 면만 보여주는 보도를 넘어 양쪽 면을 모두 보여주는 보도가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한국 언론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속도보다 정확성에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모두들 ‘단독 기사’에 목을 매지만 기껏해야 ‘10분짜리 단독’일 뿐입니다. 자극적인 제목보다는 차분하고 충실한 취재로 주목을 받아야 합니다.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낚시성 기사’는 언론에 대한 불신만 높일 것입니다.

자,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소속된 매체가 어디인지를 떠나 기자들의 순정(純情)을 믿고 싶습니다. 어떤 언론사에 들어갔든 직업 선택의 갈림길에서 기자로 살기로 마음 먹었던 건 언론의 이데아에 공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언론의 이데아란 사회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진실에 복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데아에 다가서기 위해 필요한 덕목은 팩트를 향한 용기와 겸손함입니다. 용기. 지식산

업의 비밀은 용기에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에 이어 여론권력의 힘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좌(左)에서든, 우(右)에서든 몰려오는 여론의 쓰나미 속에서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용기 없이는 지식산업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갈릴레오의 한마디가 근대를 열었듯 “그래도 진실은 있다”는 기자들의 직업적 자존심이 21세기 지식산업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기는 자신의 수첩에 적힌 취재내용이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함과 동반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취재한 팩트들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 팩트들이 사회적 통념이나 정보제공자의 의도에 따라 변형된 건 아닌지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가 틀리지 않았는가. 선입견 때문에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논리 전개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반론을 충분히 듣고 기사에 반영하고 있는가.

이렇게 허리를 굽혀 돌다리들을 두드려야 하는 건 여러 개의 진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A란 사람의 진실과 B란 사람의 진실, 법적인 진실과 도덕적인 진실, 편한 진실과 불편한 진실, 세속적 진실과 종교적 진실. 그 진실들 가운데 진짜 진실을 가려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기자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자신의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기자들이 늘어난다면 한국 언론 주변을 유령처럼 어른거리는 비관론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이제 봄입니다. 서로 다른 얼굴의 진실들이 어울려 꽃을 피울 때, 우리 사회는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기자들의 건투를 빕니다.